

왼쪽부터 최영필, 김광수, 심동섭.



광주여대 최미선 국제양궁 3관왕

월드컵 2차 대회

남녀 단체·혼성 우승

여자 양궁 세계랭킹 1위 최미선(광주여대·가운데)이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자신의 국제대회 첫 3관왕에 올랐다.

8월 리우 올림픽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한국은 올림픽 대표팀 선발 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리커브 5개 종목 중 여자 개인, 남녀 단체전, 혼성팀전 등 4개 종목을 석권하며 컵과 운드 종목에 출전하지 않고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미선은 16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끝난 2016 현대 양궁월드컵 2차 대회 마지막 날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우자신(중국)을 6-0으로 꺾으며 이겼다. 최미선은 8강전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광주시청)를 숏오프 점전 끝에 이기고 올라서 우자신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1위를 확정했다.

최미선과 기보배, 장혜진(LH)이 출전한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6-0으로 꺾고 우승했다. 최미선은 김우진(청주시청)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성팀전 결승에서도 일본을 5-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이했다.

김우진과 구본찬(현대제철), 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6-0으로 꺾었다. 남자 단체전은 혼성팀전에서 1위를 차지한 김우진과 혼성팀전에서 2관왕에 올랐고, 구본찬은 남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 리커브 종목에만 출전한 한국은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미선은 WA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에서 "단체전 결승에서 처음에 너무 긴장돼 제대로 조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고 장혜진은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 한 훈련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금메달을 따서 기분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은 올림픽 개최지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와 시차가 2시간밖에 나지 않는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선전하며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됐다. /연합뉴스

'벌떼 야구' KIA 질주 계속된다

윤석민 등 부재 속 최영필·박준표·김광수 맹활약 5연승... 두산·SK와 6연전

5연승의 KIA 타이거즈가 '잇몸 야구'의 한계를 시험한다.

KIA는 지난 주말 안방에서 열린 kt. 한화와의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5할 승률로 5위에 올라섰다.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났던 한 주였다. 지난 10일 내린 봄비는 단비였다. 넥센과의 원정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하고 안방으로 돌아온 KIA는 3연승으로 기세가 오른 kt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경기 비로 취소되면서 하루 더 휴식을 취한 KIA는 승리로 한 주를 열었다. 불붙은 방향으로 승리를 추가한 KIA는 양현종의 시즌 첫승, 핵터의 무사사구 완봉승 그리고 은퇴식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더해 5연승에 성공했다. 그리고 8-7의

승리가 기록된 15일, 서재응과 최희섭의 은퇴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챔피언스필드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단비로 시작했던 한 주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듯한 비로 마무리됐다.

5위 자리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됐지만 잠실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주중 두산과의 원정경기를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SK와 상대한다.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과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3위 SK, 두 난적과의 승부다. 만나기만 하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느라 진이 빠지는 두 팀이다.

앞선 시리즈에서 1승2패로 열세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우맨을 시작으로 장원준-니퍼트가 연달아

출격하는 두산 마운드를 공략해야 한다. 여기에 '잇몸 야구'의 내구성을 테스트받아야 한다.

윤석민과 임준혁 두 선발의 부상 속 선발 한자리를 맡았던 한기주가 두 경기 연속 난타를 당하면서 2군에서 재출전을 하고 있다. 다시 선발진에 두 자리가 비게 된 셈이다. 15일 '만형' 최영필을 필두로 벌떼 마운드로 승리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당분간은 '잇몸 야구'로 운영되어야 할 마운드, 최상의 조합을 찾으면서 한 주를 꾸려가야 한다. 일단 지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17일 가장 먼저 선발로 출격하는 지크는 22일 경기까지 책임져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불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크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16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두산	24	11	1	0.685	-
2 NC	19	14	1	0.576	4
3 SK	20	17	0	0.541	5
4 넥센	18	17	1	0.514	6
5 KIA	17	17	0	0.500	6.5
6 롯데	18	19	0	0.486	7
7 kt	17	18	1	0.486	7
8 LG	16	17	0	0.485	7
9 삼성	17	19	0	0.472	7.5
10 한화	9	26	0	0.257	15

그러나 타선의 고공행진이 반갑다. 천덕꾸러기에서 믿음직한 4번 타자로 거듭난 나지완을 중심으로 타선에 힘이 붙었다. 여기에 김호령·강한울 두 신예 선수의 때를 잘 활용하는 지크는 22일 경기까지 책임져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불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크다.

큰 힘이다. 서동욱은 21경기에서 18타점을 생산하면서 34경기에서 21타점을 쓸어 담은 김주찬, 32경기에서 각각 21타점과 19타점을 만든 이범호·필에 이어 팀 내 타점 4위다. 타석 수로 따지면 더 놀라운 집중력이다. 김주찬이 150타석에서 21타점을 만들었지만, 서동욱은 72타석 만에 18타점을 올리며 타석당 0.25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수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필까지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더 없이 좋을 공격 흐름이다.

난적과의 승부를 앞둔 이번 주 우완 최고령 선발 기록을 새로 쓴 최영필은 1000이닝 투구에 도전한다. 남은 이닝은 5.2이닝이다. 지난 11일 kt와의 경기에서 2루타 3개로 2500루타를 채웠던 이범호는 역대 서위진 방망이가 '호랑이 군단'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앞선 5경기에서 7타점을 쓸어담은 서동욱의 집중력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전에서 9회 솔로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적단의 구세주

강정호, 시카고전 홈런 등 2타점 2-1 승리 전인... 전날 사구·패배 설욕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시카고 컵스는 악연이 있다.

강정호는 작년 수비 도중 컵스 1루 주자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왼 무릎을 심하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15일(이하 한국시간)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컵스 에이스 제이크 아리에타가 던진 공에 등을 맞기까지 했다.

4회초 1사 3루 상황에서 아리에타의 공은 강정호 머리 방향으로 날아왔고, 깜짝

놀란 강정호가 몸을 돌려 목에 가까운 등 부근에 강타당했다. 작년에도 17개의 몸에 맞는 공으로 메이저리그 4위에 올랐던 강정호는 복귀 후 7경기 만에 2번 맞았다. 2-0으로 앞섰던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몸에 맞는 공 이후 병살타로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2-8로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 후에는 피츠버그와 컵스는 인터뷰를 통해 아리에타 투구의 고의성을 놓고 실전까지 벌였다. 피츠버그 시카고에서는 총

분히 의심할만했고, 컵스는 결과적으로 이 장면 덕분에 승리를 거뒀다.

양 팀의 경기는 16일에도 계속됐다. 3연전 마지막 피츠버그는 에이스 개릿 콜을, 컵스는 존 레스터를 내세웠다.

팽팽한 투수전이 벌어진 가운데, 침묵을 깬 건 강정호였다. 강정호는 0-0으로 맞선 7회초 2사 2루에서 타석에 등장, 레스터의 시속 148km 높은 직구를 가볍게 밀어쳐 우중간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 7회 1사까지 노

히트 경기를 펼치던 레스터는 강정호에게 일격을 당한 뒤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다.

강정호의 설욕전은 9회에도 계속됐다. 1-0으로 살얼음과 같은 리드를 지키던 팀에 홈런으로 귀중한 1점을 더했다.

컵스는 9회초를 무실점으로 막은 뒤 9회 말 마지막 기회를 엿보기 위해 마무리투수 핵터 론돈을 올렸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선 강정호를 상대로 론돈은 좀처럼 빠른 공을 던지지 못했다.

6구 연속 슬라이더를 던져 풀카운트가 됐고, 컵스 배터리는 마지막 결정구를 몸쪽 강속구로 선택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기다렸다는 듯 론돈의 시속 155km 강속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겼다.

메이저리그 복귀 후 8경기 만에 홈런 4개를 터뜨렸고, 지난 12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나흘 만에 다시 한 번 손맛을 본 강정호다. 이날 강정호는 팀의 2득점을 홀로 책임졌다. 피츠버그는 지구 라이벌 컵스에 2-1로 승리를 거두고 2연패 뒤 1승을 신고했다.

전날 사구에도 강정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강정호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강정호 후에' 무등중 야구

광주야구협회장기 우승

무등중이 2016년 광주야구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끝난 광주야구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무등중이 2승1패를 기록하며 우승팀이 됐다. 무등중은 광주지역 4개 중학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첫 상대 동성중에게 2-8로 졌지만, 총장중을 8-1로 꺾으며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진흥중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4-1 승리를 거둔 무등중은 최소실점에서 총장중(2승1패)을 앞서는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시상내역 ▲우승:무등중▲준우승:총장중▲최우수선수상:정도용(무등중)▲우수투수상:홍희근(무등중)▲타격상:전광진(0.800·총장중)▲최다루타상:서주형(2개·진흥중)▲최다타점상:한지은(5타점·총장중)▲감투상:이의리(총장중)▲미기상:고승원(무등중)▲감독상:김성일(무등중)▲지도상:김도연(무등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